

# 가공식품을 경계하라

김재욱

서울농대 식품공학과 명예교수

또 다른 예로서 어떤 부인은 4남매를 두었는데 윗 남매는 모유로 키우고 아래 형제는 직장 관계로 부득이 인공영양으로 키웠는데, 모유로 자란 남매는 성질이 온순하고 건강도 좋았으며 어머니의 말도 잘 듣고 집안일을 잘 거들어 주기도 하였으나 아래 형제는 몸무게는 무거운 편이지만 알레르기체질로서 두드러기가 잘 나고 성격도 이기심이 강해서 어머니에게 곧장 반항하여 매사에 애를 먹었다 한다. 이와 같이 같은 형제끼리라도 젖을 먹이는 내용과 방식에 따라 체질과 성격형성에 큰 차이가 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유보다 모유로 자란 아이의 지능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다. 즉 영국의학연구소의 루카스박사는 82년에서 85년사이에 태어난 모유와 분유를 각각 먹고 자란 아이들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모유아가 분유아보다 지능지수인 IQ가 8.3점 더 높게 나타났다 한다.

또 루카스박사는 모유 속의 유전적인 특질이 아이들의 지능을 발달시키

는 것 같다고 말하고 모유를 직접 먹인 경우와 모유를 우유병에 담아 먹인 경우는 다 같이 IQ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어린이에게 절대적으로 모유가 좋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처음 나오는 초유(初乳)를 먹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분만 후 10분 이내에 먹이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하면 늦어도 30분 이내에는 초유를 먹여야 어린이의 병에 대한 면역성 등이 높아져서 장차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 분만 시부터 적어도 24시간은 산모와 아기가 함께 있어야만 모자 간에 친밀한 정이 통하여 어린이가 장차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자라간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병원 대부분이 이러한 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구조와 시설로 되어 있어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 하겠다. 